

미술품? 장난감?... 이미지와의 즐거운 소통

세계인들의 미술축제로 자리잡은 제8회광주비엔날레(3일~11월7일)가 지난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. '만인보'를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, 광주시립미술관, 민속박물관 등을 전시공간을 역동적인 현대미술로 물들인다.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대표작을 소개한다.

사진=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

붉은 회오리

▲ 루프레히트 가이거 작 '붉은 회오리 바람'. 붉은 색 천을 역동적으로 배치해 회오리 바람이 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.

다양한 인간 군상

▼ 다양한 소재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파베우 알타메르 '브로드노 사람들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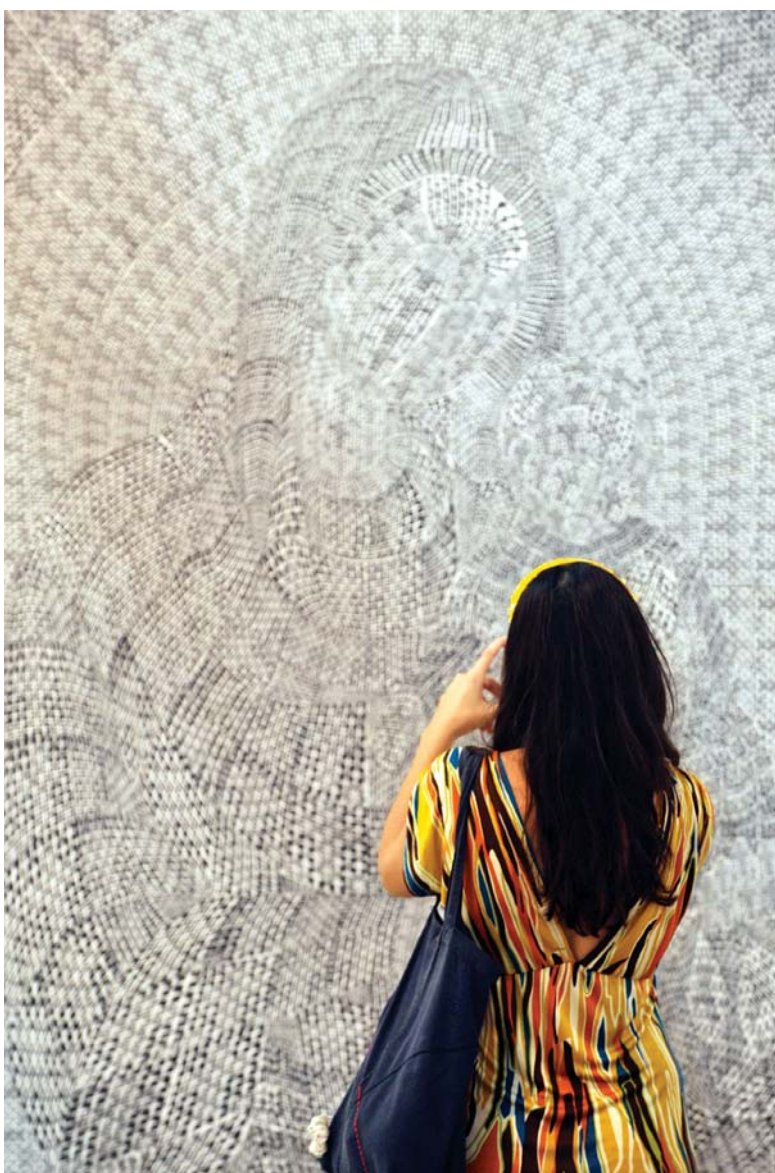
잘린 머리·몸...전쟁의 참상

폭격으로 손상된 몸, 잘린 머리 등 전쟁의 피해를 나타내는 마네킹 연작. 토마스 히르슈호른 '박혀진 페티쉬'



66일간의 현대미술 향연

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31개국 134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.



성모 마리아

토마스 바이틀레 작 '베르딩 십자가 성모 마리아'. 낡은 벽화를 보는 듯 은근한 감동을 선사한다.



빛과 선의 조화

'눈에술상'을 수상한 양혜규는 크리스마스 조명, 조개껍데기, 쇠조각, 전구 등을 이용해 만든 설치 작품 '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'을 선보인다.

우리는 인간을 죽였고

▼폭력성을 담은 한자를 붉은 색으로 써 현대 사회의 폭력과 잔혹함을 꼬집는 구더신의 '2009-05-02'

